

## 제 20 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2016 결과

-- 새로운 국제 경제 현실 반영

(상트페테르부르크, 러시아 2016 년 6 월 28 일 PRNewswire=연합뉴스) 이달 16~18 일, 제 20 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이 열렸다. 올해는 매체 대표와 사업 및 정부 대표단을 포함해 133 개국에서 1 만 2 천 명 이상이 참가했다. 16 일에는 러시아 부총리이자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이며 SPIEF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Sergei Prikhodko 가 공식 개막식에서 환영 연설을 했다. 핵심적인 국제 경제행사 중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 참여하고자 국가 수장, 정부 관료 및 주요 국제 기업과 기관의 간부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찾았다.

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자문이자 SPIEF 조직위원회 부의장 겸 사무국장인 Anton Kobayakov 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. 그는 “올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이 달성한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세계 경제와 금융 분야가 당면한 현안과 관련해 세계 각 국가, 업계 및 학계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직접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가장 크고, 가장 명성이 자자하며, 가장 필수적인 국제 플랫폼 중 하나로 그 명성을 다시 한 번 다진 것”이라며 “포럼의 참가자 수는 매년 증가하며, 이 또한 중요한 세계 경제와 금융 허브로서 러시아가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. 주최측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의 파트너, 귀빈 및 참가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”고 말했다.

SPIEF 프로그램은 규모 및 주제 수 측면에서 최고를 기록했다. 올해는 300 개가 넘는 세션, 브리핑, 언론 발표 및 원탁회의 등이 열렸다.

올해 SPIEF 프로그램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다.

- 지속적인 경제 확장
- 러시아의 경제적 잠재력 실현
- 새로운 지리경제 역학
- 기술 혁신 파악
- 인적 차원

올해 포럼에서는 600 명이 넘는 연설자와 사회자들이 논의와 토론에 참가했다. 더불어 600 명이 넘는 러시아 기업 사장들과 약 300 명에 달하는 해외 간부들도 참가했다.

또한, SPIEF 는 높은 매체 관심도를 기록했다: 700 개 조직(러시아: 542 개, 해외: 158 개)에서 2 천 651 명에 달하는 매체 대표들(러시아: 2 천 156 명, 해외: 495 명)이 포럼에 등록했고, 47 개국(러시아 외에)에서 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.